성삼 후 16주일(연중 25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채베드로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지헬레나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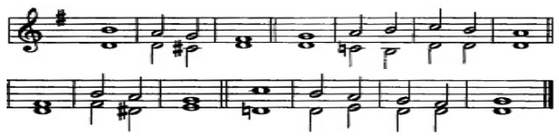
†입당성가 ····· 258장 ·····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 8쪽 ····· 집 전 자
†죄의고백 ····· 9쪽 ····· 다 함 께
†기원송가 ····· 거룩하신 하느님 ·····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 도 ····· 집 전 자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자비와 용서는 무한하시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풍성하게 베푸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마침내는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얻게 하소서.

1독서 ····· 요나 3:10-4:11 ····· 맡 은 이
성 시 ····· 시편 145편 ····· 다 함 께



1 나의 하느님, 나의 임금님, 내가 당신을 높이 |받들며
○ 언제까지나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이|다.
2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기리며,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리|며
○ 언제까지나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이|다.
3 높으시어라, 주님. 끝없이 찬미받|으실| 분,
○ 그 높으심, 측량할 |길- |없어|라.
4 당신의 업적 세세에 |전해|지고
○ 찬란한 그 공적 대대손손 알|려지|리이|다.
5 찬란한 당신의 명성과 이룩하신 놀|라운| 일,
○ 전하고 또 |전하|리이|다.
6 끝없이 어지신 일들 기|억하|며
○ 사람들은 당신의 정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 영광이 |성부| 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 |멘

2독서 ····· 필립 1:21-30 ····· 맡 은 이
†복음환호송 ····· 맡 은 이
†복음서 ····· 마태 20:1-16 ····· 맡 은 이
설교 ·····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 16쪽 ·····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맡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 19쪽 ····· 다 함 께
†봉헌성가 ····· 363장 ····· 다 함 께
성찬기도 ····· 20쪽 ····· 1 양 식
거룩하시다 ····· 22쪽(C곡) ····· 다 함 께
주의기도 ····· 25쪽 ····· 다 함 께
성체나눔 ····· 26쪽 ·····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 다 함 께
성체성가 ····· 334장 ·····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 29쪽 ·····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 29쪽 ····· 집 전 자
†파송성가 ····· 389장 ·····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9월 24일)		다음 주일(10월 1일)
1독서	조장은		윤희진
2독서	조성산		유정훈
대 도	최용옥		김운권
10월 1일 전례독서	에제 18:1-4, 25-32 | 시편 25 필립 2:1-13 | 마태 21:23-32		
성 가	278 | 424 | 439 | 453		
다음주일 복 사	허재원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5조> 정국진 이숙영 정연창 박순호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3년 9월 24일 성삼 후 16주일(연중 25주일) · 가해 · 녹색　　제27-39호

하느님 나라 - 율법의 질서에서 은총의 질서로

오늘 복음 말씀은 무척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세상의 상식에 비추어 생각하면 포도원 주인의 처사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맨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는 훨씬 적게 주어야 마땅합니다. 넉넉하게 베풀기로 마음먹었다면,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주어야 형평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처사에 불평하는 이들을 면박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일꾼의 품삯 비유의 중요한 전제를 눈여겨 살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하늘나라는 '내가 마음대로 꿈꾸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펼쳐질 때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사후 세계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에서 시작하여 경험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당혹스러운 까닭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가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와서 일했던 일꾼들의 불평은 "율법의 질서"를 따르는 인간의 공로 의식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덧붙습니다. 그에 반해, 포도원 주인의 처사는 "은총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넉넉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복음 말씀을 들으며 생긴 불편함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율법과 하느님의 은총 사이에 있는 긴장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자비하신 아버지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헤아리며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과 제사보다 더 중요한 일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서로 환대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순교의 피와 땀과 눈물

한국의 모든 순교자 축일 - 9월 26일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희생을 그대로 본받아, 신앙인은 복음을 증언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교회는 이를 순교(殉敎)라고 부릅니다. 순교의 본래 뜻은 복음의 증언(마티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성인의 순교가 짝을 이룹니다. 교회는 이 순교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스도교 초기 삼백 년 동안 수많은 신앙인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붉은 피를 흘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은 뒤에 피의 순교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기도와 노동으로 땀을 흠뻑 흘렸습니다. 붉은 '피의 증언'이 '적색(赤色) 순교'라면, '땀의 증언'은 '백색(白色) 순교'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피와 땀의 순교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교 신앙도 피의 순교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1784년, 천주교회로 복음이 들어온 뒤로, 수많은 신앙인이 박해 받고 순교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인 1884년 개신교회가 들어와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앞선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에서도 일제의 폭압 아래서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박해받았고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성공회는 이 모든 순교의 역사를 기억하고, 1920년대부터 한국의 모든 순교자를 기념하여 9월 26일을 <조선인 치명일>로 지켰습니다.

한국의 성공회에서도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피의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고초를 겪었고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후 성공회 신자들은 참으로 빈곤한 사회와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땀 흘려 보살피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 안에서 아픔과 눈물을 나누며, 우리 사회와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성공회 역사에도 '백색의 순교'가 선연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땀과 눈물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과 교회를 우뚝 세워,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구원의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명절 '추석'

우리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하며,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계절을 따라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구하오니, 기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조상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추석 명절 추모성찬례 안내**
9월 29일(금) 오전 9시 / 성전
가족과 함께 오셔서 추석 추모 성찬례를 드리고, 기쁜 명절을 하느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산본교회 안양교회 안산교회 연합예배 안내**
10월 15일(주) 오전 11시 / 늘푸른 복지관
남부교무구 안양권 세 교회의 선교 협력을 위해 마련되는 연합예배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세 교회의 연합과 교류를 위한 예배이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교회위원회**
10월 1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어린이 예배실

◆ **세례성사 · 견진성사 교육 신청 안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교육이 10월 둘째 주간부터 진행됩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제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성사 - 12월 24일 / 견진성사 - 11월 19일
(미리 말씀하신 분들에겐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구역모임**
오늘(24일) 간편애찬 후에 구역모임을 진행합니다.

◆ **수요 성서공부**
9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교회 탐방 - 서울 편**
10월 14일(토) / 대성당 - 대학로 - 영등포성당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무구 위원회**
10월 8일(주) 오후 3시 / 수원교회

◆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 56차 정기총회**
10월 10일(화) 오전 10시 /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

이번 주 외울 말씀 49
내 구원 내 영광은 하느님께 있으니 그분은
나의 힘이신 바위, 나 하느님께 피신하리라.
(시편 62편 7절)

지난 주일 통계

■ **십일조 · 월정헌금** 1,770,000원
김준우/조장은 백남진/박선희 유군상 이은가 이진봉/김영란 최서은 최용옥/윤희진 최자연 채희발

■ **주일헌금** 323,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승현 김운권 류한신 박선희 박종례 백수빈 백옥경 신동흥 유군상 유정훈 이윤식 이은경 임혜지 장성환 조준행 최순덕 한명숙 황선숙

■ **주일학교** 3,000원
유아윤 유아현 이하린

■ **감사헌금** 100,000원
유아현(생일) 차준섭/김승숙(범사)

■ **특별헌금** 20,000원
유군상(늘푸른복지관) 최하현(인천나눔의집)

■ **교회 차량헌금** 이윤식 100,000원

◈ **주간 전례독서(9월 25일 ~ 9월 30일 / 연중 25주간)**

	독 서	복 음
25일(월)	에즈 1:1-6	루가 8:16-18
26일(화)	로마 8:33-39	요한 12:20-32
27일(수)	에즈 9:5-9	루가 9:1-6
28일(목)	하깨 1:1-8	루가 9:7-9
29일(금)	1요한 3:17-18	마태 25:34-40
30일(토)	즈가 2:5-9, 14-15	루가 9:43-45

✠ **기도해 주세요** ✠

◈ **가족과 이웃을 향한 전도**
70명이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도귀순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김병재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새교우(예비신자)** 전아영